



NH농협생명 전북총국, 장수초서 경제·금융교실

NH농협생명 전북총국과 장수농협은 지난 8일 장수초등학교에서 재학생 48명을 대상으로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경제관념과 금융 기초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돈의 개념과 역할, 저축의 중요성, 보험의 기능, 용돈기입장 작성법 등 실생활 중심의 금융교육으로 진행됐다. '모두레'는 '모두'와 '두레'의 합성어로, 협동조합 정신과 생명보험의 상부상조 이념을 담고 있다. 농협생명 임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며,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임실 신평면 지사합, 2분기 정기회의 개최

임실군 신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홍충의, 손안진)는 지난 8일 신평면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제6기 신평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장 수여 및 협의체 구성하고, 또한 202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반기 마을특화사업(따뜻한 식사 한 끼)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신평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추석 명절 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도움을 받아 추석 명절 꾸러미 전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연말에도 특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진안소방서 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 안전운행기원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지난 8일 오후 소방서에서 진안의용소방대에 새롭게 도입된 다기능순찰차의 안전 운행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동태 도의원을 비롯해 김충국 소방서장, 손동규 군의원, 소방공무원, 진안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새롭게 도입된 다기능순찰차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처치기방 △산불 진화용 등짐펌프 △차량용 냉장고 등 다양한 장비가 탑재돼 각종 재난 현장과 응급상황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진안소방서는 이번 차량 도입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현장 활동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안전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촌캉스' 만끽

찐안(安) 하루 팸투어 운영... 두부 만들기 등 체험·시골밥상·마을 탐방

진안군과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의 대표 프로그램인 '찐안(安) 하루 팸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찐안(安) 하루 팸투어」는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이 아니라 청정 진안고원의 자연과 사람, 마을의 삶을 직접 경험하며 천천히 머물고 쉬어가는 농촌여행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시골밥상, 마을 탐방을 통해 진안의 자연과 문화를 오감으로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이번 팸투어는 '어디를 갔는가'보다 '어떻게 머물렀는가'에 의미를 두고 있다. 빠르게 소비하는 여행이 아닌 마을의 시간에 발맞춰 걷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안의 하루를 온전히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에 '호캉스'가 있다면 진안에는 '촌캉스'가 있다. 화려한 관광시설 대신 따뜻한 마을 인심이 있고, 복잡한 일정 대신 자연이 주는 여유가 있다.

진안고원의 바람을 맞으며 걷고,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건강한 시골밥상을 맛보는 시간은 그 자체로 특별한 여행이 된다.

지난 5월 31일 첫 번째 팸투어는 동향면 봉곡마을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봉곡마을 문화공간 담쟁이 잔디마당에 모여 약동류지선의 '소문의 낙원'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여행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봉곡마을의 마을만들기 현장을 둘러본 뒤 하가막마을로 이동해 정성이 담긴 시골밥상을 맛보고 맛돌커피 체험을 하며 농촌의 여유를 만끽했다.

또한 성수면 포동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포동포동 두부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이번 팸투어에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과 진안군 농촌유학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9일에는 임실군 새싹어린이집 원아들이 백운면 두원마을을 찾아 즉석 체험과 다양한 마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노영권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자연을 소비하는 여행이 아닌 자연과 함께 머무는 여행, 마을을 구경하는 여행이 아닌 마을과 관계를 맺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팸투어에 참가한 임지환 씨는 "도시와 시골이 함께 춤추는 신나는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네이버 블로거 바노피파 씨는 "진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여행지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앞으로도 진안고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지리산농협, 농촌 왕진버스 운영

남원 지리산농협(조합장 정태환)과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김중주)는 9일, 지리산농협 유통센터에서 관내 고령 농업인 및 취약 농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이날 농번기 바쁜 일정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농업인들은 한방의료진료, 건강상담, 구강검사, 검안 및 돌보기 지원 등을 받았다.

정태환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으며, 김중주 시 지부장은 "농촌 어른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 과 협력해 왕진버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심 천심의 마음으로 농업인 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시민소통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남원시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강화하기 위해 9일 '2026년 제2기 시민소통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관내 주요 현안 사업 현장에서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3월 개관한 남원 바이오에스딩센터 방문해 위원들은 센터 내 바이오화장품 피부부담감소지원실, 시험검사지원실, 기업 공동연구실 등을 둘러보며 주요 시설과 운영 현황을 들었다.

이어 최근 이진·확장해 개장한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로 자리를 옮겼다. '정북 1호 애견놀이터'라는 상징성을 가진 이곳에서 위원들은 쾌적하게 조성된 환경과 확충된 편의시설을 직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2027년 개관을 앞둔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 예정 부지를 찾았다. 위원들은 학교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향후 대학생 입교가 지역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기대감을 공유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소방서, 갯벌 고립사고 주의보 발령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최근 전북 서해안 일대에서 갯벌 고립 사고발생으로 지난 3일 부안군 갯벌 구조 사례를 바탕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올바른 대처법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전북 서해안에서 발생한 해무질 및 갯벌 사고는 연평균 56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의사항으로 △갯벌에 입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물때와 기상 상황을 확인 △갯벌에 발이 깊게 빠졌을 때 역지로 몸을 빼내려 허우적거리면 오히려 더 깊이 빠질 수 있다.

위험 징후와 고립을 인지한 즉시 119나 해양경찰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소방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행사

남원소방서는 9일 오전 명지 1차아파트에서 화재 취약계층의 초기 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소방공무원 3명과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원 20명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소방서는 1990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인 명지 1차아파트(총 216세대) 거주민 중 아동, 노인, 장애인인 거주하는 83세대를 우선 보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야외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후 감지기 작동 시연, 감지기 전달식 및 기념 촬영과 2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화재 시 대피 요령과 감지기 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소방서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사업'



의 일환으로, 총 2억 9천만 원(국비 80%, 도비 20%)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관내 아동, 노인, 장애인 거주 1만 2,063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3개의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동춘 대응예방과장은 "앞으로도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양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필북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3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